

# 교육정책에서의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관점 비교 -의미연결망과 중첩맵 분석을 활용하여-

이진숙  
상명대학교 강사

##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pectives of Educational Experts and the Public on the Educational Policy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Overlay Mapping-

Jin Suk Lee  
Lecturer, Sangmyu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정책 대한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관점에 대한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된 2015 개정 교육관련 연구논문 1152편과 692편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의미연결망과 중첩맵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추상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난 반면, 대중들에게선 교육과정의 개발 자체가 아니라 개정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와 결과적인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집단에서는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위한 역량교육과정 개발'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발'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중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개편 방안'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집단과 대중의 관점 간의 간극을 보여준은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교육과정 정책, 2015 개정교육과정, 전문가, 대중, 의미연결망, 중첩맵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perspectives of experts and the public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o do this, research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13 to May 2020. During this period, 1152 research papers and 692 newspaper articles were collected,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ducational expert group showed great interest in the core concept of the development of the revised curriculum focused on the abstract concept, while the public focused on the practical problems and consequences of the revision rather than the development of the revised curriculum itself. These results not only show the gap between the perspectives of the educational expert group and the public but also raise the need for effective communication to bridge the gap.

Key Words : Educational Policy, 2015 Reform Curriculum, Expert Group, Public, Sementic Network ,  
Overlay Map

## 1.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즉,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총론과 각론이 개발된다.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의 각 단계별 교육전문가 집단의 관점은 결국 교육과정의 방향과 내용을 좌우하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통한 핵심역량의 함양과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강조하는 등 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1].

지금까지 교육과정 관련 연구의 경향과 신문기사를 활용해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과정 관련 연구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연구 및 연구방법론의 경향을 외국과 비교하는 연구[2],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교육과정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3],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교육과정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4], 국제적인 교육과정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5]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과정 연구에 신문기사를 활용한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관련 내용분석[6-8],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 분석[9]이 이루어졌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대중의 관점에 관한 연구들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경향성을 통해 보여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로 전문가 집단과 대중 간 관점의 경향성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키워드들 사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전체의 의미를 네트워크의 형태로 시각화하는 분석 방법이다. 특히 문서 속에서 함께 출현되는 키워드들을 선(link)으로 연결시켜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표면적으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므로, 특정한 주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0].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전문가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연구논문과 대중의 관점을 적절히 반영한 신문기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육정책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관점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개발과 적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 차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의 성공적 안착과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전문가의 관점 vs 대중의 관점

새로운 정책이나 기술의 도입과 변화에 대해 연구자를 비롯한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인식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전문가는 객관적으로 그 영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반해 대중들은 이들 낯선 변화에 대해 다소간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우려에 사로잡혀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11]. 나아가 연구자들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대중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소위 정보격차(information gap)는 새로운 정책으로부터 생겨나는 사회 갈등의 핵심 매개요인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핵심 사안이었다[12].

특히, 점차 사회정책에 대한 지식 의존성이 증가되면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전문가 집단에 종속되고, 대중은 이로부터 배제되는 정책대상의 타자화가 심화되는 [13]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14]는 정책은 전문가들이 주도하지만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점은 정책개발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대중을 타자화하는 오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전문성의 차이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15]. 즉, 이러한 경향은 대중은 비합리적이고,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라는 전제를 내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정책 실행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중들의 변화인식이 주관적 직관을 토대로 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대중들의 지식을 과소평가하는

한편 계몽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16]. 그러나,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주관적 관점은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한 맥락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17]. 따라서 대중들이 특정 정책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당 정책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그러한 관점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며 어떠한 해결방안이 제시되는지 등에 대한 경향성을 전문가의 관점과 비교해 파악하는 것은 정책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18, 19].

국가의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 대중 간의 인식 차이는 상당히 크다. 특히, 교육 정책의 입안에 대한 논의 또한 교육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대중은 정책개발을 위한 담론형성과 정책생산의 과정에서 제삼자로 위치 지어졌다. 정책의 개발은 전문가가 주도하지만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대중의 관점과 여론은 정책 조형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대중의 관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였지만, 전문가와 대중의 관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또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국가의 주요한 교육정책인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 교육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로 전문가 집단과 대중 사이의 관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경향성과 원인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가의 교육 정책 입안과 적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 차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3. 연구방법

#### 3.1 분석 대상 자료와 범위

이 연구에서는 교육전문가의 관점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에 등재된 저널에 게재된 논문 1152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고, 자료의 범위는 RISS에 등재된 학술논문으로 제한하였다.

대중의 관점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Google 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 엔진(<http://news.google.com>)을

통해 총 692편의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 ABC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12개의 일간지이며, 2013년 10월 24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기사이다.

분석 대상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신문기사들을 수집하기 위해 논문의 제목, 키워드, 초록과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키워드의 띄어쓰기와 내용도 세분하여 ‘2015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2015 문·이과 통합형’,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어로 선정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신문기사와 연구논문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되어진 자료가 모두 적합한 내용은 아닐 수 있으므로, 수집된 데이터 키워드의 의미를 파악하여 연구자가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집한 자료의 기간은 ‘대학입학 전형의 간소화 및 대학입학제도의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한 2013년 8월 27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개정교육과정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 것을 감안하여 최종 적용 연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연도별 분포와 자료 소스별 비율은 Fig.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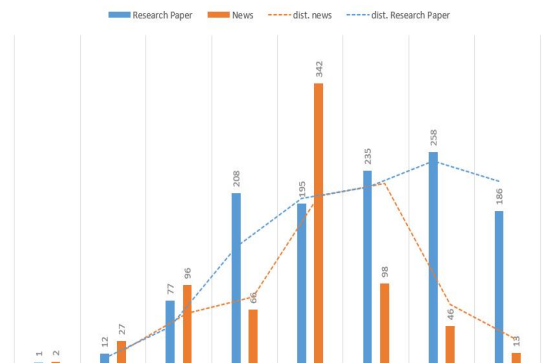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Papers vs. Newspapers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 발표 시점인 2013년 이전에는 교육전문가와 대중 모두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전문가의 관심은 교육과정 적용 준비 시기인 2016년부터 급격하게 늘었고, 대중의 관심은 2017년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급격하게 관심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교육과정 적용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반대로 전문가의 관심은 교육과정 적용 이후로도 꾸준히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전문가와 대중의 관심 패턴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이는 교육전문가의 관심은 오히려 새로운 교육과정의 준비는 물론 교육과정 적용 이후의 결과까지 폭넓게 관심을 가지는 반면,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인 대중의 경우 교육과정 적용 그 자체가 더 높은 관심을 가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3.2 분석방법

#### 3.2.1 텍스트 자료 정제 및 추출

수집된 텍스트 자료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어 분석을 다루는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가 원활하도록 정제하였다. 먼저, 통계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무의미문자(조사)처리, 복합명사처리, 특수문자처리 그리고 문단나누기 등의 데이터 사전처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KAIST에서 개발한 한글 자연어 처리 형태소 분석기를 기반으로 하는 R프로그램의 'KoNLP 라이브러리의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류 및 분석 대상 어간의 자동추출 단계를 거쳤다. 이어서, 추출된 어간과 형태소를 기준에 분류해 놓은 형태소들과 비교·검토했 후, 형태소 분석 시의 외적인 문자 수준의 오류인 단/복수, 띄어쓰기, 약어, 품사형태의 변경 등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연구자의 직접적인 검토를 통해 형태소 분석 시의 오류와 오류 어간을 보정하였다. 어간을 보정한 후에는 외적인 문자 수준의 유사성이 높은 어간들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연구자가 전문가와 함께 어간들의 의미적 유사성을 직접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유사한 어간들을 추출하여 보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글자 미만 어간, 범용적인 어간, 의미없는 어간 등과 출현 빈도가 낮은 어간들을 불용어간을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제의 과정을 거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최종 키워드는 논문 130개, 신문기사 189개이다.

#### 3.2.2 동시출현행렬의 추출

동시출현행렬(동시단어출현행렬, Co-occurrence/Co-word Matrix)은 비정형 텍스트 분석을 위한 키워드 기반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동시출현이란 특정한 기준의 범위(분석단위, 문장, 문서 등)를 기준으로 동일한 범위 내의 객체

(사람, 단어 등)들의 유의미한 존재를 의미하며,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이 동시출현을 객체 간의 유의미한 관계로 해석한다. 동시출현행렬은 모든 객체의 동시출현의 빈도를 포함하고, 동시단어출현행렬은 모든 단어/키워드 간의 동시출현의 빈도를 표시한다.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분석단위 내에서의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동시출현의 기준과 범위를 논문 초록과 기사로 규정하였다.

#### 3.2.3 의미연결망 분석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가시화 도구인 VOSviewer(<https://www.vosviewer.com/>)를 활용하여 맵핑과 클러스터링을 실시하였다. Vosviewer는 거리 기반의 네트워크 가시화 도구(Distance-based maps)이다. VOSviewer는 맵핑한 결과를 네트워크 맵과 밀도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해준다. 네트워크 맵 상에서는 두 키워드 사이의 거리는 키워드 간의 강도 즉, 유사한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키워드 간의 유사성이 높아질수록 키워드 간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또한, VOSviewer에서 두 키워드가 동시출현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유사도는 커지는 반면, 두 키워드의 전체 출현횟수가 커질수록 유사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20]. 맵핑의 결과는 VOSviewer를 통하여 의미상 연관성에 따라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를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이때에는 대중화된 클러스터링 기법인 modularity-based 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였다[21].

또한, 이 연구에서는 맵핑과 클러스터링을 통한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첩맵(Overlay Mapp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중첩맵(Overlay Mapping) 기법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22, 23].

네트워크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 노드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중첩맵은 비교 대상 네트워크들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맵(Basemap)을 제작하고, 비교의 대상이 네트워크를 이 기본맵상 위에 가시화하여 나타낸다. 기본맵이 완성되면 이를 구성하는 노드들과 각 노드의 위치가 결정되며, 각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사전에 정해진 노드의 위치에 배치되며 노드의 값과 연결관계만이 각 네트워크 별로 변화하게 된다. 즉, 모든 비교 대상 네트워크의 노드들의 네트워크 내 동일 위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맵핑한 키워드의 좌표를 고정하

고, 연구논문과 신문기사의 키워드 속성을 변화하면서 맵을 작성하였다[1, 22]. 이때, 노드의 속성(색상과 크기)은 연구논문과 신문기사의 출현횟수에 비례하도록 분석하였다. 각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사전에 정해진 기본맵 노드의 위치에 배치되며, 각 네트워크에서의 노드의 값과 연결 관계만이 각각 변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모든 네트워크의 노드들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정책에서의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관점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매핑하고 클러스터링하여 네트워크 맵으로 가시화하였으며, 각 집단의 관점에 대한 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중첩맵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전공 전문가 1인과 네트워크 분석 연구경험이 있는 교수 1인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 4. 연구결과

##### 4.1 키워드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중점적인 관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영역의 경향을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논문과 기사에서 공통으로 출현하는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를 비교하였다. Table 1은 논문과 기사 모두에 출현하는 키워드의 빈도 순위를 비교한 표이다. 모두 34개의 공통 키워드가 존재하며 각 키워드의 빈도 순위는 출처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교과’, ‘SW교육’ 키워드의 경우 신문 기사에서는 높은 빈도 순위(4위, 7위)를 보이지만 논문에서는 낮은 빈도 순위(54위, 60위)를 보여주어 상대적으로 중요 교과인 수학과 최신 신규 교과인 SW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과 연구자로서 균형적 관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체험활동’, ‘과학기술’, ‘성취’ 키워드의 경우 논문에서 높은 빈도 순위(10위, 11위, 5위)를 보이는 반면, 기사에서는 낮은 빈도 순위(70위, 72위, 75위)를 보여주어 다소 비교과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연구자의 핵심 개념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논의를 명확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Table 1. Rank Comparison of Core Keyword: Research Papers vs. Newspapers

Common Keyword	Rank in Research Papers	Rank in Newspapers	Difference
textbook	1	1	0
course	9	3	6
math education	54	4	50
subject education	4	5	-1
history course	32	6	26
SW education	60	7	53
evaluation	6	9	-3
site	37	10	27
high school	23	11	12
science	11	13	-2
elementary school	8	16	-8
social	50	20	30
competency	3	21	-18
middle school	22	23	-1
diversification	16	25	-9
convergence education	35	26	9
core concept	19	32	-13
SW	60	35	25
Chinese letter	26	36	-10
Korean language	31	42	-11
Chinese letter usage	26	43	-17
integrated education	12	45	-33
academic ability	51	47	4
improving	55	51	4
connectivity	18	53	-35
process focus	13	58	-45
understand	25	62	-37
coding education	60	65	-5
safety course	63	67	-4
experience activities	10	70	-60
material	36	71	-35
science and technology	11	72	-61
achievement	5	75	-70
program	67	76	-9

\* (Rank in research papers - Rank in newspapers) A positive value(+) means relative importance in the research paper, but a negative value means relative importance in the newspaper.

##### 4.2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 4.2.1 의미 클러스터의 구성 및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동시출현단어 분석 후 네트워크 맵의 시각화를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 연구논문과 신문기사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각각 클러스터링하여 세부영역을 살펴보았다. 기사와 논문 전체기간 동안 선정된 키워드들의 단순빈도가 아닌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 5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다. Table 2는 연구논문과 신문기사를 종합하여 클러스터 한 5개의 주제영역을 나타내며, 네트워크의 분석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거쳐 각 클러스터의 영역을 네이밍하여 표시하였다.

Table 2. Keyword of Five Clusters

Sort	Result of Cluster
1 Consequences and Impact of Curriculum Revision	textbook, science and humanities Integration, history course, diversification, process focus, society, math course, Science, Necessity, Information course, integrated, apply, convergence education, safety course, announcement, nationalization, core, problem, elective courses, common, talented person, adopt, common subjects, propel, recipe, suggestion, burden, fostering, operation, certification, comment, research, draft, confirmation, core concept, integrated science, integrated social studies, writing, plan, training, reflection, notice, standard, Review, learning volume, enlargement, Chinese letter usage, style, implement, emphasis, opposition, expected, math abandoned student, necessary, goal, organization, important, newly established, concept, English, progress, exam, public hearing, explanation, reorganization, Korean SAT reformation, modification, amendment, opinion, preparation, Declaration, downsize, concern, development, confusion, argument, completion of course, forum, compilation, committee, reduction, drawback, learning burden, number of lecture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dvanced, establishing, literacy education, research team, formation, Happiness, calculus, physical exercise course, full revision, publishing, hastily, multicultural Education, early admission, alternatives
2 Curriculum Development of Improve Learning Experience	core competencies, curriculum revision, competency, domain, curriculum education, achievement, evaluation, elementary school, core content, knowledge, integrated education, creative convergence, technology course, demand, Connectivity, school, art course, music course, concept understanding, change, systematization, activity focus, general overview, practical course, social studies course, learner, subsistence, teacher, traditional music education, recognition, fit, home Economics course, value relationship, courses, Improving, student, science course, agricultural education, level, Execution, nation, perspective, ethics subject, experience, reconstruction, special education, dietary education, design, assignment, sense of community, perform, curriculum Competency, regular assessment, education with robots, system of content, criticism, communication skills, instructional design, students, grammar, religion, ethics course, general school, particulars, grade, teacher training
3 Strengthening the Basic Humanities Curriculum	instructor, participation, free semester system, middle School, parents, basic knowledge, vocational education, support system, Korean education, humanistic education., SW education, SW, future, experience activities, program, Korean language course, talent nurturing, discussion education, ability to think, career education, computer education, solution, coding education, 4 <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regular education, reading educatn, digital, site, innovation plan, environment, creative, descriptive, interest level, role play
4 Reform college entrance system	subject education, Korean SAT, high school, college entrance, university, private tutoring, absolute criteria, reinforce, uniformity, academic ability, English course, Comprehensive Student Admission, selective, regular admissions, situation, early admission, academic record, private high school,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generalschool, extension, admission, competition, high school credit system, essay test, science and engineering, science and engineering, relative evaluation, specialized high school, policy, 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college entrance reform
5 History textbook policy	Korean history, Dokdo education, culture

도출된 주제영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룹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발’, 두 번째 그룹은 ‘학습경험 질 개선을 위한 역량교육과정 개발’ 세 번째 그룹은 ‘기초소양·학생참여형 교육 신설’, 네 번째 그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 마지막 그룹은 ‘한국사 교과서 정책과 평가방안’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로 클러스터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발’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 이를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주제들이 속해 있다. 여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융·복합 교육과정으로서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주제 [24]라 할 수 있는 ‘문이통합’, ‘선택과목’, ‘다양화’, ‘과정중심’ 등의 키워드가 속해 있다. 또한, ‘수학교과’, ‘통합과학’, ‘통합사회’등 문이통합의 주요대상이 되는 교과목과 연관된 연구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총론의 고시와 맞물려 당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주제도 속해 있다.

두 번째 그룹은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위한 역량교육과정 개발’로 클러스터링 되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총론의 편제와 개편에 치중하지 않고, 학습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과 교육과정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25]하고,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함에서 기인한 연구경향으로, ‘역량’, ‘이해’, ‘핵심내용’ 등의 키워드가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또한,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등의 주요 개발 방향과 연관된 ‘내용체계’, ‘성취도’, ‘수행’ 등의 키워드와 ‘실과교과’, ‘문학교육’, ‘음악교과’, ‘국어교과’ 등 교과 교육과정 개발과 연관된 연구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그룹은 ‘기초소양·학생참여형 교육 신설’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학습경험으로서의 기초소양을 강조하고,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는[25]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소양’, ‘체험활동’, ‘참여’ 등의 키워드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자유학기제’, ‘토론’, ‘동아리’, ‘SW’ 등의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 그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2017년 교육부가 1년간 유예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능’, ‘고등학교’, ‘절대평가’ 등의 키워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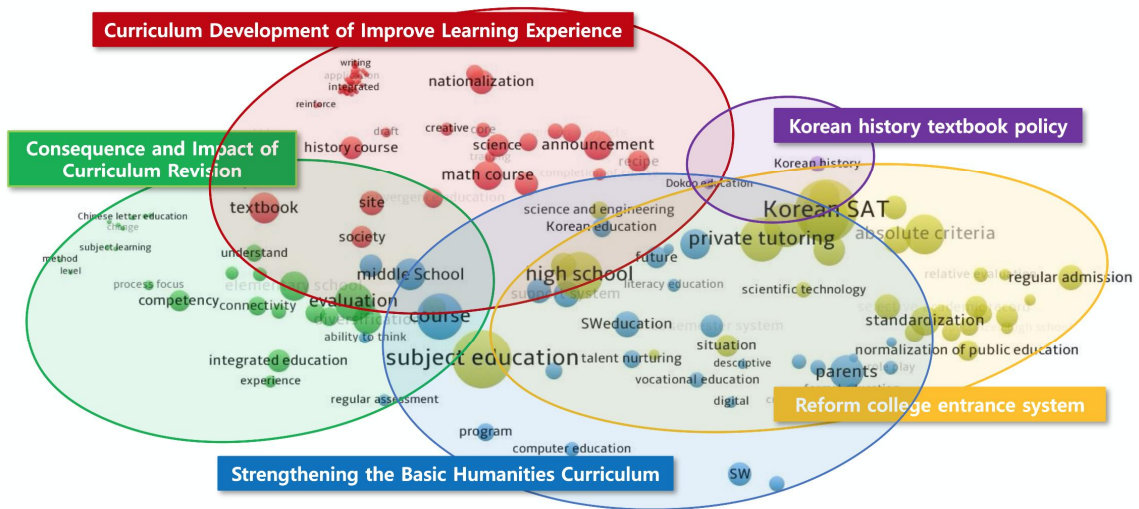


Fig. 3. Entire Perception Structure of Public

스터 역시 결국 이 주제들과의 연결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 관련 기사 개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대중의 관심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맵으로 나타내면 Fig. 3와 같다. 신문기사에서는 Fig. 3와 같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다양한 주제를 고르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수능’, ‘절대평가’, ‘교과교육’, ‘사교육’ 등의 주제가 부각되어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네트워크 맵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맵에서 가장 강조되고 확장되어 있는 영역은 ‘수능’, ‘고등학교’, ‘절대평가’를 연결고리로 클러스터 되어 있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 영역이다. 이는 교육전문가의 관심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으로 처음에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급부상 되어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는 2017년에 개정교육과정이 현장에 처음 적용되고, 이어서 2018년 ‘대입제도 개편’ 시기 전후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둘째, ‘SW교육’, ‘학부모’, ‘수업’을 연결고리로 하여 클러스터 되어 있는 ‘기초소양·학생참여형 교육 신설’ 관련 이슈도 네트워크 맵 상에 광범위한 영역을 이루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거나 강조된 학생참여형 교육관련 키워드 중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셋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발’ 영역은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나, 대중의 관심은 총론 자체보다는 총론 준비과정에서 이슈화된 ‘국정화’, ‘교과서’를 연결고리로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사안이었다. 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한 공식적 검토를 선언된 2014년 1월부터 논의가 촉발되었고, 2015년 10월,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2017년 5월 31일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확정되면서 점차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넷째, ‘역량 교육과정을 표방한 개정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습경험 질 개선을 위한 역량교육과정 개발’ 관련 이슈는 상당히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중의 관심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수업현장에 대한 미시적이고 실제적 관심으로 대체되었으며, ‘평가’, ‘통합교육’ 등의 키워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교육전문가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연구논문과 대중의 관점을 적절히 반영한 신문 기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관점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개발과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 차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이해범위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시기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전문가와 대중 모두가 관심이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추상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난 반면, 대중들에게선 개정 교육과정 개발 자체가 아니라 개정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와 결과적인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전문가들은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적용-개선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대중은 적용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일관된 맥락에서 연결되지 못하고 파편화 되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합리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와 대중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판단 기준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위한 역량교육과정 개발'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발'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중의 관심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개편 방안'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과정 개정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학력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그 파생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대중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개인의 경험과 삶에 비추어 인식하며 평면적으로 판단하여 '나(자녀)'와 관계있는 변화인가'와 같이 대체로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결과와 영향을 연계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전문가 집단과 대중 사이의 관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토대위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26], 교육과정 개정이 정부와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대중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담론형성과 개발과정에서 제삼자로 위치지어지는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정 개정에 국한된 결과가 아니라, 일반 사회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도 나타난다.

사회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정책 자체보다도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정책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때[27], 전문가와 대중의 관점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실행에 이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교육전문가 집단과 대중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자와 대중의 이해범위에 대한 차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하고 정책적인 지지 등이 일관된 맥락에서 연결되지 못하여 교육과정 개성 성공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개정의 중점 등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대중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추구하는 인간상, 개정의 중점 등에 대한 명확한 전달과 공감대 마련을 위해 교육과정 고시 준비의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 명확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대중의 눈높이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정의 판단 기준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대중의 지지와 교육과정 정책 적용의 효과를 모두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개인이 교육과정 개정을 개인의 경험과 삶에 얼마나 가까운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가가 의사소통 전략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원리, 내용 등의 사안을 '수능', '정시확대', '학생부 종합전형' 등 '가까운 현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별적 사안과 연결지어 노출되도록 하는 등 대중들에게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의사소통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은 정부주도,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대중들에게는 개정된 결과물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주로 요구되어 왔다.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시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이슈와 쟁점을 공론화하여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실시한 포럼과 공청회들도 개발자의 입장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여는 설명회에 그치는 경우도 많

왔던 것이 사실이다[26]. 연구자를 포함한 교육전문가와 교사, 시민단체 등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한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Lee, J. S. (2020).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Convergence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Overlay Map-.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8(2), 25-50.
- [2] Park, M. J., & Sung, Y. K. (2011). Trends of curriculum research: Research areas and methods analysi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4), 25-50.  
DOI : 10.15708/kscs.29.4.201112.002
- [3] Jang, S. M., & Han, D. S. (2017). Meta-Synthesis of National Curriculum Studies: Focusing on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4), 325-353.
- [4] Oh, C. J., Shin, H. K., & Kim, E. K. (2015). A Review of Research trends in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6(4), 337-362.  
DOI : 10.19049.JSPED.2015.16.4.14
- [5] So, K. H., Hu, Y. J., Park, J., & Chang, Y. W. (2019). A Meta-analysis of International Trends in Curriculum Studies: Based on the Papers Presented in AERA since 2010.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7(4), 117-142.
- [6] Kang, J. Y., & So, K. H. (2016). Media Discourse Analysis of Korean Newspaper Articles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3), 1-27.  
UCI : G704-000671.2016.34.3.005
- [7] Kang, H. S., & Lee, Y. B. (2015). Analysis of the Press Report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Exploration of the Suggestion for Future Revision.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3(4), 435-464.  
DOI : 10.25152/ser.2015.63.4.435
- [8] Kim, S. Y., & Kang, S. W. (2015). 2015 "Integrated Curriculum between Humanities and Sciences and Engineering Tracks" in Korea: on the Based Media News repor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5(2), 91-112.  
UCI : G704-SER00004221.2015.25.2.002
- [9] Yu, Y., & Baek, S. G. (2016). Issue Analysis of the Related Mass Media's News Articles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Using Automated Text Analysi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9(3), 127-156.  
UCI : G704-001275.2016.19.3.003
- [10] Lewicki, R. J., Gray, B., & Elliott, M. (2003). *Making sense of intractable environmental conflicts: Concepts and cases*. Island Press, Washington D. C. USA.
- [11] Wynne, B. (1995).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1, 361-388.
- [12] Dietz, Thomas, R. Scott Frey, and Eugene, A. Rosa. (2002). "Risk, Technology, and Society." In Riley E. Dunlap & William Michelson (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 (pp. 329-369).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13] Hong, S. T. (2015).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and Corruption-Accident Society. *Economy and Society*, 108, 231-253.  
DOI : 10.18207/criso.2015.108.231
- [14] Gilbert, N., & Terrell, P. (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 [15] Han, B., Kim, H., & Kim, Y. (2020). An In-depth Interview Study of Risk Perception, Psychological Distance and Public Behaviors on Climate Change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People at Large and Exper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1, 465-505.  
DOI : 10.46407/kjci.2020.06.101.465
- [16] Bostrom, A., Morgan, M. G., Fischhoff, B., & Read, D. (1994). What do people know about global climate change? 1. *Mental models*. *Risk Analysis*, 14(6), 959-970.  
DOI: 10.1111/j.1539-6924.1994.tb00066.x
- [17] Slovic, P. (2000). *The Perception of risk*. London, UK: Earthscan.
- [18] Fischhoff, B. (1990). Psychology and public policy: Tool or tool maker?. *American Psychologist*, 45, 57-63.  
DOI: 10.1037/h0091626
- [19] Morgan, M. G., Fischhoff, B., Bostrom, A., & Atmans, C. (2002). *Risk communication: A mental models approa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 Van Eck, N. J., & Waltman, L. (2010). Software survey: VOSviewer, a computer program for bibliometric mapping. *Scientometrics*, 84(2), 523-538.  
DOI: 10.1007/s11192-009-0146-3
- [21] Waltman, L., N. J. Van Eck, N., & Noyons, C. M. (2010). "A Unified Approach to Mapping and Clustering of Bibliometric Networks." *Journal of Informetrics*, 4(4), 629-635.  
DOI: 10.1016/j.joi.2010.07.002
- [22] Rafols, I., Porter, A. L. & Leydesdorff, L. (2010). Science Overlay Maps : A New Tool for Research Policy and Library Manag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1(9), 1871-1887.  
DOI: 10.1002/asi.21368

- [23] Carley, S., Porter, A. L., Rafols, I., & Leydesdorff, L. (2017). Visualization of disciplinary profiles: Enhanced science overlay maps. *Journal of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2(3), 68–111.
- [24] Park, S. Y., Lee, J. R., & Kang, H. S. (2015). An Analysis of Professional Recognition on 2015 Curriculum Revisio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4), 1172–1183.  
UCI : G704-001373.2015.27.4.002
- [25] Park, H. K. (2016). Analysis of Problems Related to the Process of Subject Curriculum Develop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3), 185–208.  
UCI : G704-000671.2016.34.3.010
- [26] Kim, D. H. (2017). The Limits of Governance System for Development of 2015 National Curriculum. *The Korean Society for Curriculum Studies*, 35(2), 95–118.
- [27] Bak, H. J. (2013).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BSE between Experts and Lay People.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3(2), 301–341.  
UCI : G704-000099.2013.23.2.002

이 진 숙(Jin Suk Lee)

[장학원]



- 2019년 2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교육학, 교육과정
- E-Mail : salmon7897@gmail.com